

“전북 최저임금 1만원 보장하라”

전북 최임 공무원, 이 액수 2인 가구 생계비 못 미쳐...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임금이 기준돼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던 최 모씨(남, 27세)는 최근 하던 공부를 미루고 취업을 선택했다. 대학시절 대출받았던 학자금(2년 거치 2년 상환) 상환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최 모씨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입사한 회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월급여 약 126만원)이다.

최 모씨는 “월 급여가 30~50만원만 오르면 좋겠다”면서 “매월 80만원 정도 나가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내면 식비와 통신비 등의 해결도 힘들어 아직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논란이 일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에 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4월18일 양성빈(장수) 도의원의 ‘생활임금제 도입 제안’을 계기로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에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는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투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북도는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며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급 6,080원은 2014년 기준으로 봐도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1만원(월 환산 209만원)도 2인 가구 한 달 생계비 220만원에 못 미



청년과 함께하는 6차산업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김제시 허량영농조합법인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현실적인 생계를 반영한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즉, 전북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공동투쟁의 주장이다.

이날 공동투쟁은 앞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던 전주시에서 2015년 생활임금 결정시, 생활임금 금액을 단순히 5개교 나열해 놓고 그것을 5지 선다형 문제” 찍듯이 결정한 전주시의 행

위는 생활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투쟁은 생활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북도민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구매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생계

비’가 되어 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의 삶을 보장하는 임금이 아니라,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임금이 기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만률(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지난해까지 공개했던 자료가 언젠가부터 사라졌다”고 전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정원 3757명으로 7명 줄인다

미륵사지·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 등으로 조례 개정안 상정

남원 만인의총의 국가관리 전환 등으로 전북도 정원이 일부 감소될 예정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총 정원을 3,757명으로 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현재 총 정원은 3,764명이므로 7명 줄어든 셈이다.

일반직은 1582명에서 1577명으로 5명, 연구직은 158명에서 156명으로 2명 줄어든다.

이번 정원 조정은 익산 미륵사지와

남원 만인의총의 국가관리 전환으로 관리인원이 줄어들고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국가시책을 이행할 인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도는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해 팀 및 사업소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전담 팀 운영을 위해 현행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을 ‘자활사회서비스팀’으로, 전국 가족방역기관 명칭 통일을 위해 현행 축산위생연구소 명칭을 ‘동물위생시험소’로 바꿀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군산 신흥동 고지대를 근대마을로

시,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

군산시는 1시군 대표 관광지로 선정된 ‘근대마을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16일 개최했다.

근대마을조성사업은 고지대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으로 매입된 신흥동 일원 10,000㎡ 부지를 근대역사문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특화해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2019년까지 총 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산시 부시장을 주제로 건축, 디자인, 역사문화, 관광, 어린이,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근

대문화도시 조성 자문위원 2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근대마을조성사업 기본방향은 숙박공간과 체험공간을 섹터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보다는 근대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체험관을 축으로 체험과 전시관을 마련해 교육적 요소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체험시설들이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기본구상을 마련해 6월중 2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며 “기본구상 확정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휴직자 등에 ‘성과연봉 전액 지급’ 추진

공무원 보수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휴직자와 교육과전자 등에 제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휴직자, 무급휴가자 등에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휴직 시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40~60%를 감액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1년에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른 근무자와 분리 평가, 교육 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과전자 중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대신 강등, 징계 처분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전액 감액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직이 없어진 시점부터 직무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준급도 최초 20% 삭감을 시작으로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 40%까지 삭감한다.

아울러 장기간 과업을 갔다가 복귀했을 경우에도 최초 3개월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직무급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연구직·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연구직 공무원에게는 연구업무수상금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타 특수업무수상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보수·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용기 기자

전북 특수목적관광단 11,000명 목표 순항

4월까지 2796명 유치... 체험형 ‘스테디셀러’·문화·스포츠 교류형 6000여명 계획

전통문화, 스포츠 등에 대한 체험과 교류 등이 연계된 전북도 특수목적관광상품이 외국 관광객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외국인 특수목적관광단 11,000명 유치 목표를 향해 전격질주 중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북특수목적관광단’은 2,796명(전통문화체험단 1,425명 49회, 문화스포츠 교류단 1,371명 10회)이

유치됐다.

특수목적관광이란 문화 체험이나 교류 등의 목적을 가지고 관광지를 선정해 이동하는 관광상품으로 ‘전북특수목적관광단’ 상품은 도내 여행사와 해외현지여행사가 공동상품을 기획해 해외현지에서 홍보활동 및 모객활동을 펼친다.

체험형 관광으로는 전통문화 체험 관광이 주를 이뤄 지난 미얀산 향토

음식 체험과 전주한옥마을 한지체험 등의 상품이 있다. 체험형 관광은 현 재 일본전통문화체험단과 하와이 관광단이 도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어 ‘전북스테디셀러 관광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화·스포츠 교류형 관광은 문화공연 및 스포츠 교류와 동호회 행사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도를 방문해 현재 1,3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

치했으며 도는 올해 말까지 6,000여명의 문화·스포츠 체험단 및 교류단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도는 ‘제1회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중워크데이’ 지정과 중국관광객 5,000여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전북도에서 문화스포츠 교류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중국 동호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문화 체험단과 교류단은 주로 도내에서 1박 또는 2박 이상 숙박을 하고 있는 체험형관광상품으로 올 11,000여명 유치를 위해 전격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가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고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선희

- 원광대학교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성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양욱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 & 리더십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 063-288-9700 www.jjmaeil.com